

세상에 이런 황재가!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키펠과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천팔로 쓰노니 내가 갇히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속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1-25]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서 옥에 갇혔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식으로 말하면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로 보입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었습니다. 그 때쯤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서 바울을 참 성심성의껏 도운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어느 날 “선생님,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요.” 하면서 아주 비밀스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분을 아시죠?” 당연히 알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복음을 전했고 빌레몬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 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해서 여기 숨어살다가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할 테니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참 고민되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면 안 됩니다. 로마시대에 종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쳤다? 이걸 잡히면 죽는 겁니다. 더군다나 누군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종을 잡아서 데려가면 그것도 황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요. 입단속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러 날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네시모를 불러서 “내가 이 편지를 줄 테니까 네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 편지의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이니까 접어놓고요, 사도 바울은 이 짧은 편지 속에 빌레몬에게 간곡한 부탁 하나를 담아서 보내는 거죠. ‘이 부탁을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부탁을 거절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표현을 써 가면서 부탁을 하는데 빌레몬이 거절할 수 없도록 사도 바울이 쓴 방법이 몇 가지나 되는가? 꼭 한 번 찾아 보세요.

거의 대부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세모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별모양도 치면서 공부하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요약해 해 보면 세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칭찬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간구,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근하게 암시만 줘요. 여기 나와 있는 방법이 대충 20가지가 된다고 보이는데 그 것을 분류해보면 이 3가지 정도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에 관한 겁니다. 빌레몬을 가리켜서 1절 중간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자기가 교회를 세워서 맡겨둔 빌레몬을 향해서 ‘그대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이걸 굉장한 칭찬입니다. 하늘같은 선생님이 나를 보고 ‘동역자요, 사랑하는 자’라고 말해 주는 것, 참 감사한 일이지요. 4절, ‘내가 항상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것은 너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너를 생각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죠.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네 사랑과 믿음 때문에 내가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 사랑과 믿음의 결과가 6절입니다,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너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것도 칭찬입니다. 7절,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선생님이 옥에 갇혔는데 너 때문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얼마나 큰 칭찬이겠어요? 21절 보세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큰 칭찬이죠? 내 이 부탁 반드시 들어줄 줄도 아는데 아마 내가 했는 것보다 더 잘 해 줄 줄 믿는다.

이게 전부 빌레몬을 칭찬하는 일인데, 칭찬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인 것이므로 우리도 이런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잘 분간해요. 이걸 잘못됐고 이걸 잘했고 이렇게 분간하는 데는 익숙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옳고 그른 것을 잘 분간한 사람이었음에도 빌레몬에게 정말 칭찬을 앞세워가면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이나 아이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울려 살 때에 칭찬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하는 짓이 꼭 제 애비를 닮아서...” 이러죠? 이거 칭찬이예요? 비난이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할 때 이런 말을 합니까? 아이들이 잘 못할 때 이런 말을 하곤 그러잖아요? 잘 못할 때 아이만 야단치면 돼지, 왜 애비까지 끌고 들어가야 하느냐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칭찬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세워 일으켜 세우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보, 오늘 아침 어때?”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하나요? “내 원래 뭐든지 잘 먹잖아.” 이걸 자기가 자기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 숨씨야 어찌되었건 간에 별 관계없고 내가 잘 해 주고 있잖아. 이거 참 나쁜 말이에요. “내 입에 딱 맞아.” 이것은요? 내 입에란 말만 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입에는 별로일 수도 있다는 암시가 들어 있잖아요. “응, 맛이 딱 맞는데.”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 왜 ‘내 입에’를 넣느냐 말이에요. 아주 사소한 말이지만 자기 칭찬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세워 가는 건지 이런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가끔은 거짓말인 줄 알지만 기분 좋은 말이 있고요. 말은 맞는데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부인이 신랑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당신같이 멋진 사람이 어디 있어?”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듣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기분은 괜찮아요. 여자들이 남자를 조종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어리숙한 게 남자가 돼서 조금만 치켜주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주는데 그거 왜 조종을 못하는지 이상해요. 힘으로 아무리 해 보세요, 말 듣는가? 그런데 “세상에 당신같이 멋진 남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기분 좋은 것은 어떡해? 이런 말 익숙하게 쓸 줄 아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신랑이 부인을 아주 사랑해요. 그런데 너무 솔직한 것도 병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 인물은 별로잖아.” 뒤집어 생각하면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뜻이죠. 생각을 해 보면 좋은 장점이 많이 있다는 뜻인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분은? 별로 안 좋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한 칭찬이예요. “인물 제쳐놓고라도 좋은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니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인데도 저는 여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감동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래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젊은 친구들한테 분명히 말해 줍니다. 여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너무 오묘하게 말하지 마. 그런 것 못 알아들어. 단도직입적으로 뭐해야 돼요? 거짓말 해 버려! 어떻게요? “세상에 당신같이 예쁜 여자가 어디 있어! 그게 훨씬 낫더라.” 그런 겁니다.

그게 너무 어려우면 조금 둘러서 책망을 하거나, 야단을 쳐야 할 때라도 조금씩 한 바퀴씩 둘러서 말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텔레비전 보면서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옆에서 뭐라고 그러거든 한 마디 해 주세요. “저거 다 화장발이야. 화장 안하고 밖에 내 놓으면 당신보다 못 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고 아니고를 떠나

서 듣는 사람 기분은 괜찮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았든 몰랐든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예요. 빌레몬에게 부탁 하나 하면서 곳곳에 칭찬하는 말을 잔뜩 넣어놓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연습이 필요하고 그런 것 잘 해야 된다는 말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요약은 부탁하는 말, 간구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부탁을 해야 하는데 그걸 전부 간구라고 표현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8, 9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너한테 명령을 해도 충분히 명할 수 있을만한 위치에 내가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이러죠. 분명히 명령할 수도 있는데도 내가 명령대신에 이렇게 부탁하는 거니까 내 부탁을 좀 들어주라는 것이죠.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예전 번역에는 동무라고 되어 있었어요. '내가 나를 동무로 안다면' 여러분, 대사도이신 저 분이 '나를 친구로 안다면' 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안 들어 줄 수 있나요? 7절에 빌레몬을 보고 뭐라고 부르니까? '형제여'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고 '형제여'라고 부르는 게 얼마만한 간구의 효과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18절로 갑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 말로 추측을 해 보면 오네시모가 이 집에서 도망을 칠 때 재산상의 손실을 좀 끼치고 도망을 쳤나 봐요. 사고를 쳤든지 아니면 멀리 도망치는데 도피 자금을 훔쳐서 달아났든지, 어쨌든 손해를 끼쳤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하는데 있었다고 봐야죠.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을게. 이 말이죠. 그런데 19절 보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친필로 쓴다는 것은 은행에서 잘 하는 겁니다. 은행에 돈 빌리러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쓰세요, 저기 쓰세요, 해서 쓰는데 어떤 사람은 써 놓고도 무얼 썼는지 모릅니다. 그냥 쓰라고 하니깐 썼지, 그런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80이 다 되었을 때 은행에 돈을 좀 빌릴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아버지는 목을 다쳐서 수술해서 병원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계시는데 그 전에 신청했던 거라서 제가 대신 갔어요. 본인 모셔 오래요. 목을 다쳐서 수술하고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노인을 어떻게 데려와요? 어쨌든 본인이라야 한대요. 참 답답한 노릇 아니예요? 그래서 말이 좀 될 만한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뭐 "내가 아들이고 주민등록 다 있으니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점장이 제 친구였어요. 나오다가 봤어요.

친구에게 대출 부탁을 하면 될 건데 제가 그런 부탁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직권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그거 해 드려라." 그래서 끝났어요. 대신 사인하고 끝났는데 야, 그래도 뺨이라도 있으니 일이 풀리지, 진짜 병원에 있는 사람 직접 데려와야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출장이라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 '친필로'라는 것 머리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친필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차용증서 써 줄게."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저는 이게 너무 재미있어요.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 나한테 빚 있잖아? 너 나한테 빚 있지만 나는 그 빚 말 안 한다. 안 한다고 하면 말도 안 해야 되지요. 빌레몬은 사실 지방유지, 부자입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 놓을 만큼 부유한 사람이고 종을 거느리고 살 만큼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에게 무슨 빚이 있겠어요? 현금 아닙니다. 돈을 빌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복음 전했잖아. 너 나 때문에 구원받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건 빚 아니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야기 안 할게. 대신에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 있으면 내가 다 갚을게. 빌레몬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을 한 번 해 보세요. 20절 보세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내가 이 말 잘 들어주면 내가 기쁘고 평온하게 될 건데 내 부탁 안 들어 줄 거냐? 이거죠.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안 들어주겠니? 이런 어떤 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은근하게 압력을 넣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그리고 9절 끝에 보시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러죠? 갇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무슨 죄가 많아서 갇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나는 갇혀 있는데 너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교회를 섬기며 잘 하고 있잖아. 편안하게 살고 있는 네가 관혀 있는 내 부탁을 안 들어줄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1절로 가 보세요.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러죠. 이거 나 혼자만 너한테 부탁하는 것 아니다. 나를 이어서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2인자 디모데도 나와 함께 너한테 하고 있는 부탁이다. 은근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9절 중간쯤 다시 보세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러죠. 나이 많은 게 무슨 자랑이에요? 무슨 얘기죠? 늙은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너 내 부탁 안 들어줄 거냐? 이런 의미에서 나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은 정말 하이라이트예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처자식도 없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늙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다는 거예요. 너 이아들 팔시할거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 팔시할 수 있겠어요? 11절 보세요,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나한테도 유익하지만 너한테도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12절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심복이라는 말은 원래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내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만약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를 죽여야 한다면 그건 내 심장을 찌르는 거야.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14절 보십시오,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러죠.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 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정말 선한 일이라는 거죠.

15, 16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오네시모가 네 집에서 탈출해서 나를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은 그를 종으로 둘 것이 아니라 형제 이상, 사랑하는 형제로 두려고 일이 그렇게 된 거야. 이걸 약간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면 이건 오네시모의 잘못도 아니요. 이 일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탈출한 것은 이놈이 나쁜 놈이었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 합니다.

22절 보세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숙소를 마련하라는 것도 은근한 압력이죠? 언젠가 내가 놓여나면 너한테 가서 머무를 거다. 그런 암시예요. 너 지금 내 부탁을 안 들어준다면 내가 거기 갔을 때에 무슨 낫으로 나를 볼래? 이런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문장마다, 말끝마다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도록 이런 은근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냥 명령을 하거나 강제로 하거나 억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니면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 다오. 이럴 수도 있을 터인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칭찬하고 부탁하고 은근하게 압력을 넣는 겁니다.

부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 그를 영접하라. 이게 부탁입니다. 만일 바울의 편지 없이 오네시모가 발각되면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영접하고 그런 다음에 그를 용서해서 13절에 보시면 돌려보내 달라고 말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러니 다시 돌려보내다오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플로새까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이거 수천 km될 거예요. 바다를 건너야 하고 강을 건너야 하고,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배가 뜨지 못하면 몇 날, 몇 달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꽤 먼 곳입니다. 그 곳을 가다가 무슨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그 기간 동안 바울이 해야 할 일을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모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겠다.’ 이렇게 부탁해도 될 터인데 굳이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보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일 하는 것 하고는 참 많이 달라요.

핵심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그 먼 거리를 보내는 것은 빌레몬의 그 마음, 선한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분명히 내 말대로 해줄 줄 믿지만 이것이 억지가 아니고 자의라는 것은 분명하

게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이 일을 하노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좋아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그 무엇을 좋아할 때가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남편이 소중합니까?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소중합니까? 그것을 질문이라고 합니까?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긴 해요. 그러나 IMF 터지고 직장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많은 가정이 깨어집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 사람의 능력으로 벌어오는 돈이 귀했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무시하고 버리더라는 겁니다. 주변에 이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 먼 거리까지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나 일은 좀 비효율적이고 더디더라도 빌레몬의 그 선한 마음을 다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이렇게 처리하노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일하는 방법도 '일보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참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개인적인 일인데, 이렇게 짧은 편지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왔을까? 그런 고민을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곡한 부탁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빌레몬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가만히 한 번 보세요. 누구 생각이 나세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보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편지 쓰고 있는 이 장면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이 일찍 성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그림자처럼 잘 보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네시모와 같은 처지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를 그렇게 대입해서 읽어보시면 느낌이 살아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네시모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적어도 종이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올 때는 어리숙한 종이 아닙니다. 생각이 있고 용감하고 뜻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도망쳐서 잡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도망을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매우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도망쳤던 그가 바울의 편지 한 통을 가슴에 품고 다시 돌아간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생각을 해 보세요. 가다가 잘못해서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갑니다. 가는 도중에 편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편지에 자기 목숨이 달려 있어요. 뜯어 봤을까요? 안 뜯어 봤을까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편지 한 통을 들고 다시 주인을 찾아 갑니다. 제 생각에는 안 뜯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낸 그 사랑이 어떻게 크고 놀라운 것인지,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부탁이라면, 선생님이 가라시면 설령 그 길이 죽는 길이라도 내 갈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만한 감격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 땅을 탈출했던 탈북 민들이 중국에 건너가서 어찌하다 한국의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 고향에, 지금도 저 어두운 북한 땅에 살고 있는 내 동족을 두고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통일이 되거든 다시 만납시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가는 길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들이 가진 마음 상태는 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믿음 없이는, 어찌면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편지 한 통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령 내가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의 감격,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그 주인 빌레몬이 자기를 기꺼이 받아 준 거예요. 물론 편지를 전해 주기 전까지는 묶여서 잡혀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발견한 사람이 다짜고짜 잡아 갔을지도 몰라요. 죽이라고 하는데 ‘죽기 전에 제가 보여 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내밀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편지를 본 빌레몬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선생님의 안부도 묻고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 대접을 잘 한 후에 제 생각에는 돈 보따리 하나 큰 것 주면서 “가서 선생님 잘 모셔라.” 그렇게 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돌아서 나오는 오네시모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환대받은 오네시모가 그 집을 나올 때는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나오다가 돌부리에 걸려 엎어졌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길 가다가 엎어지면 뭐라고 그러시나요? “에이, 재수 없게!” 그러시나요? 오네시모는 자빠져서 이마가 깨져서 피가 흐를지라도 “아이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라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오네시모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도망쳐 나갔던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용서받고 인정받고 돌아오는 오네시모의 눈에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겠느냐는 말이지요. 이 감격, 이 감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감격이요, 감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황재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용서함을 받았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 이상의 황재가, 더 이상의 큰 복이 없습니다. 빌레몬서에 나타난 오네시모의 마음, 갈 때와 올 때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묵상하면 구원받은 우리의 감사, 감격을 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오네시모를 위한 짧은 글이지만 ‘아,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짧은 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 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